

신성장·원천기술 R&D 30~40% 세액 공제

1200억 추가 세수 감면...투자·경기 반등 '올인' 경단녀 재취업 중소기업 2년간 인건비 30% 지원

세법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올해부터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액화천연가스(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안전시설이 포함된다. 스마트공장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기술'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목표인 '경기 반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020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감소분 6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당초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를 받았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 대기업

(0~2%), 중견기업(8~15%), 중소기업(25%)보다 최대 15배 높다.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해준다.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오는 2022년까지 최대 70% 소득세가 감면된다.

올해부터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은 인력개발비에 추가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는 법

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규정은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광주상의 신년인사회
광주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지난 3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윤병태 전남도 정부무지사 등 600여명의 참석자들이 건배사에 맞춰 화합과 상생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영,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분양

전용 84㎡ 1054가구 오늘부터 사흘간 청약

부영주택은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 '마린파크 애시앙' 1·2단지 분양을 공표한다. '마린파크 애시앙'은 지하 2층, 지상 최대 25층, 18개 동, 전용면적 84㎡(A, B, C) 단일면적의 총 1054가구 대단지다. 전 세대 판상형 위주의 4bay 혁신설계가 적용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특화된 조경설계와 합리적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일정은 1·2단지 모두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4일, 2단지 15일이며, 계약은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이다. 입주는 2022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단지별로 각각 테마를 갖춘 산책로와 정원이 조성된다. 또 티하우스와 석가산이 있는 로망틱가든, 놀이터 등도 꾸민다. 커뮤니티 공간에는 GX룸과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웅천택지개발지구는 실수요자와 투자

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신도심이다. 여수시는 웅천동 일원에 총 272만2253㎡ 규모로 마리나, 관광·휴양시설, 친환경주거시설 등을 유치해 관광·레저 복합 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마린파크 애시앙'은 단지 앞에 이순신공원이고, 웅천못공원과 웅천천수공원, 구봉산 등이 주변에 있다.

교육 시설로는 웅천택지지구 내 웅천초·중학교가 들어서 있고, 이순신도서관과 정보과학고, 한영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이 가깝다. KTX 여천역과 KTX 여수엑스포역,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여수공항 등이 인근에 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지난해 여수지역에 공급된 분양아파트는 2곳 뿐이었다"며 "이처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데다, 합리적 가격에 대단지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분주택은 여수시청 인근인 여수시 시청로 2(학동 71-2번지)에 마련됐다. 문의, 여천 모델하우스 061-685-4025.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77조 광융합기술' 전담한다

산자부, 전담기관 지정...정책수립·광융합지원센터 구축

광주에 있는 광산업진흥회가 77조 원 시장 규모의 한국 광융합기술 진흥 사업을 전담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이끌어 나갈 전담기관으로 광산업진흥회가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 2일 '제1차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를 열어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전담기관 지정에 따라 진흥회는 '광융합기술지원법'에 근거한 산학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융합산업 정책수립과 정보제공,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기업지원 활동도 본격화한다.

진흥회는 '광융합기술 글로벌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선도기술 확보 ▲산업 기반 강화 ▲수요시장 창출 ▲산업생태계 활성화 ▲산업지원체계 구축 등 5대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실행방안을 빠른시일내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진흥회는 정체된 광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산자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전주기별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광융합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화 컨설팅과 기술·인력 확보, 수출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진흥회가 육성해 나갈 광융합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기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과동성·입자성 등을 지닌 빛의 성질을 제어·활용하는 광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동력이다. 세계시장 추세는 2017년 5300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2년에는 796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 힘써준 산자부와 광주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부역량을 강화해 광융합산업이 명실공히 글로벌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설 중소기업 특별자금' 3000억 지원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월 6일까지 두 달여 간 '설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30%포인트를 우대한다. 광주은행은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했다. 이 기간중 만기가 되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받은 고객이 원활한 경우에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추계 신규대출 3080억원, 만기연장 3305억원을 지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9	17	18	26	42	3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82,017,464	17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6,569,011	78
3 5개 숫자일치						1,340,858	2,709
4 4개 숫자일치						50,000	134,155
5 3개 숫자일치						5,000	2,155,749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우리 동네에는 예술가가 산다

예술인마을과 열린 스튜디오

- 일상을 예술처럼, 여기가 예술인 마을
- 광주 예술의 거리, 아티스트들의 등지로
- 예술플랫폼으로 열린 작가 스튜디오
- 제주 저지예술인마을을 가다

트렌드 읽기

2020

업글인간, 오팔세대
페어플레이어를 주목하라

- 클릭, 문화현장③ 제주 빛의 벵거 클림트 감동 있는 반 고흐전
-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네팔 쿵 보다나트 사원 페아 호수의 전설
- 기획-도시 디자인, 행복한 도시경관의 완성-스튜디오 공간에 생기 불어넣는 도시디자인 탐구 시작

광주광역시 초대 총괄 건축가 함인선

"광주 대표도서관을 명품건축으로"

문량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호방한 기질과 감성 담은 시
전남 나주 백옥 문학관

한국영화 100년-남도시네마 산책
한 세기 남도영화, 한국적 정서 담았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⑥
바우하우스 예술교육의 양 날개 '형태'와 '재료'

전시 화제
'손장섭-역사가 된 풍경'전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①
화가 천경자의 집밥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월드라마로 여수 홍보하는 여수시청 김상욱
그라운드와 차별 고한 KIA타이어즈 윤석민

아이들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국악 크로스오버 바람
신한류가 몰아친다